

남 구 청 장 신 년 사

꿈과 희망이 넘실대는 남구를 꿈꾸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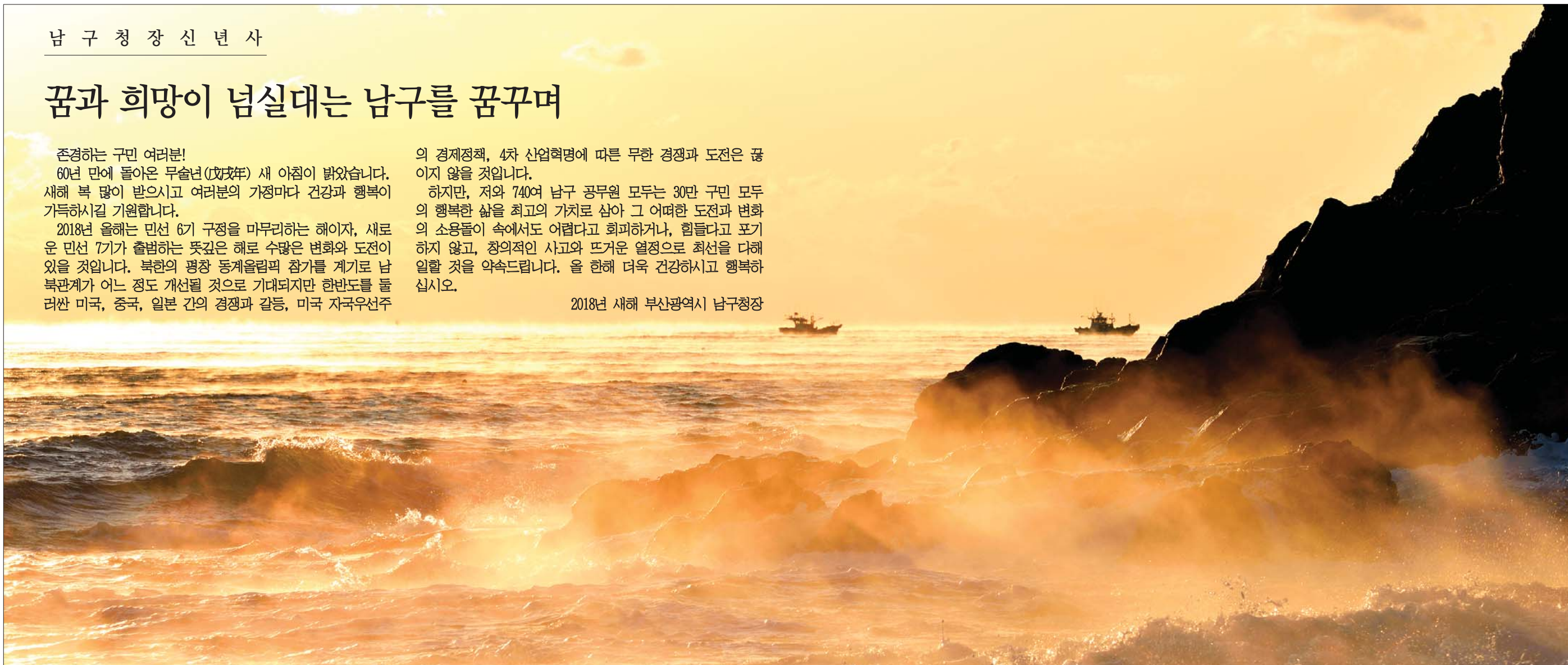
60년 만에 돌아온 무술년(戊戌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올해는 민선 6기 구정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새로운 민선 7기가 출범하는 뜻깊은 해로 수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간의 경쟁과 갈등, 미국 자국우선주

의 경제정책,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무한 경쟁과 도전은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740여 남구 공무원 모두는 30만 구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그 어떠한 도전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2018년 새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송곳문화가 물이 담긴 지난 11월 아침 해가 솟아 이기대 앞바다가 가마솥처럼 물안개를 토해내고 있다. 사진=이무현 작가(본지 명예기자)

2월부터 5개 대단지 아파트 8016세대 입주

남구 인구 30만명 회복… 지역경기 활력 기대

8월말까지 2만명 늘어… 지방세 수입만 1572억원

우암·감만 뉴스테이 완료되면 2020년 무렵 32만명

매년 감소하던 남구 인구가 올해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의 잇단 준공과 입주에 힘입어 30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 인구는 2017년 11월말 기준 27만9700명(등록 외국인 포함)을 기록했다.

우선 대연2재개발구역인 대연롯데캐슬레전드가 3년의 공사를 끝내고 오는 2월 입주가 시작된다. 최고 35층 공동주택 30개동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단지에만 총 3149세대가 옮겨온다. '미니 도시' 하나가 생기는 셈이다. 이어 4월에는 용호만매립지에 아이에스동서의 초고층 주상복합 W(더블유)가 첫삽을 뜬지 5년여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69층 4개동에 1488세대가 이삿짐을 싣는다. 6월에는 당곡공원 아래 대연6재개발구역 대연파크푸르지오에 1422세대가 들어오고 8월에는 남구도서관 바로 옆 대연7재개발 대연SK뷰힐스에 1174세대가 옮겨온다. 이밖에 문현금융단지 내 2단계

사업인 비아이시티(BI CITY)가 8월 준공된다. 부산국제금융센터 바로 옆에 783세대 49층 오피스텔과 객실 306개를 갖춘 39층 비즈니스호텔 그리고 뮤지컬 전용극장 등이 들어서면서 문현금융단지는 명실상부 '부산의 월스트리트'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5개 아파트단지에 유입되는 가구 수는 총 8016세대. 한 세대 당 평균 2.5명이 거주할 것을 감안하면 2만명이 늘어나 오는 8월 이후 남구 인구는 30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신혼 주거지가 완성되면 인구 유입 효과 외에도 재개발 공사 등으로 어수선했던 주변 환경이 정비돼 도시 쾌적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 중산층 이상의 인구 유입은 전체된 지역 경기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재정 확충에도 큰 보탬을 줘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만 1572

■ 2018년 입주예정 아파트 현황(8016세대)

아 파 트 명	세대수	입주예정	위 치
LOTTE CASTLE 대연롯데캐슬레전드 공동주택 30동, 35층	3149	2018년 2월	대연6동 남구청 옆 (대연2 재개발)
아이에스동서 The W 공동주택 4동, 65층	1488	2018년 4월	용호만매립지
PRUGIO 대연파크푸르지오 공동주택 14동, 28층	1422	2018년 6월	대연4동 당곡공원 아래 (대연6 재개발)
대연 SK VIEW Hills 공동주택 12동, 26층	1174	2018년 8월	대연5동 남구도서관 옆 (대연7 재개발)
비아이시티 49층	783	2018년 8월	부산국제금융센터 옆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

▷대연자이(면허시절정장 사거리) 965세대(2019년 3월 입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 우암 1, 2구역 3455세대·감만1구역 5242세대(각각 2020년 준공 예정)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우암동과 감만동 지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20년 무렵 우암1·2구역 3,455세대, 감만1구역 5,242세대가 늘어 남구 인구는 32만명에 육박하게 된다. 이 수치는 지방자치체 실시로 수 영구가 분구된 1995년 당시 남구의 인구 규모와 비슷해진다.

한편 남구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해 2018년~2022년 5년간의 인구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관계기사 6면>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 일시 : 2018.2.2.(금) 19:30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부산광역시 남구
- 후원 :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자모회
- 특별출연 : 하늬타리 밴드, 더뮤직라이어



영어고수의 비법 노트 <4면>

올해 달라지는 제도 <5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해결사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까지 정부 지원

남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운영

시간당 7530원

남구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돕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와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 당 최대 월 13만원이며 사회보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동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등에서 방문신청과 우편·팩스신청도 가능하다.

남구는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안착을 위해 이법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운영한다.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와 전담인력을 지정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돕고 있다. 또 관내 주요지점에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현수막을 걸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남구는 향후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책을

■ 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고용보험 가입 및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정액으로 1년간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방문·우편 : 주민센터, 고용센터

※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80~90% 지원, 기존 가입 근로자는 40% 지원.

설명하고 신청·접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고용센터 김효승 센터장은 "최저임금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 문제"라며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꼭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정해졌다.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남구청 경제진흥과(607-4292)

남구문화원 성재영 원장 동명대상 수상

(문화부문)

남구문화원 성재영(73) 원장이 제10회 동명대상(문화부문)을 수상했다. 성 원장은 2008년 초대 원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남구문화원장을 맡으며 열여섯 개 지역문화를 지키고 남구 문화융성에 애쓰고 있다.

또 2016년부터 부산시문화원연합회 회장 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옛 동명목재의 고(故) 강석진 회장의 도전·창의·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동명대상은 부산 발전에 애쓰는 지역 인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명예롭고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 1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관계기사 9면>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최종 확정

첨단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육성… 배후부지 ODCY는 제외

우암부두가 정부의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중마부두 2곳을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역으로 확정 고시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류화민 항만시설에 첨단 해양신산업을 집적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우암부두의 개발 구역은 17만5931㎡로 경제적 편익(B/C)이 1.712로 높게 책정됐다. 경제적 편익 지수가 1이 넘어면 사업성이 있고 1 아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수부는 총사

액비 277억4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우암부두 개발에 대한 기본설치설계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우암부두에는 해양레저기기, 선박해양플랜트 등 관련기업들이 입주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예정이다. 이번 개발사업으로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각각 633억원과 200억원으로 추정되며 약 4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당초 우암부두와 함께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배

후부지인 ODCY(부두 밖 컨테이너 야적장·25만2000㎡)는 이번 개발사업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암부두의 토지 소유권이 부산항만공사에 있는 반면에 ODCY 부지는 대부분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 높은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가 우암부두의 10배가 넘는 데다 경제적 편익도 0.685로 낮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우암부두는 1996년 준공돼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운영되다 2015년 4월부터 일반부두로 전환, 지난해부터는 대형화물차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규 모
올 림 픽	2018. 2. 9. ~2. 25. (17일간)	평창, 강릉, 정선	15개 종목 90여개국, 6500여명 참가
패럴림픽	2018. 3. 9. ~3. 18. (10일간)	평창, 강릉, 정선	6개 종목 50여개국, 1400여명 참가

